

기업의 대변인, 언론의 파트너, 홍보인들의 워라밸 만족도 지수는?

WORK & LIFE



KAA저널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무 환경 변화 속, 홍보 담당자들의 ‘워라밸(Work and Balance)’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국내 최초로 진행된 ‘홍보인의 워라밸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홍보전문가 5인의 좌담회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직장인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급여는 낮아도 워라벨이 있는 회사 vs 워라벨은 없지만 급여가 높은 회사’ 중 어느 회사를 택해야 하는지 질문하는 게시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그에 대한 댓글은 ‘무조건 워라벨이 최고’, ‘워라벨이 너무 안 지켜지는 회사라 퇴사를 고민 중이다’ 등 워라벨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반응들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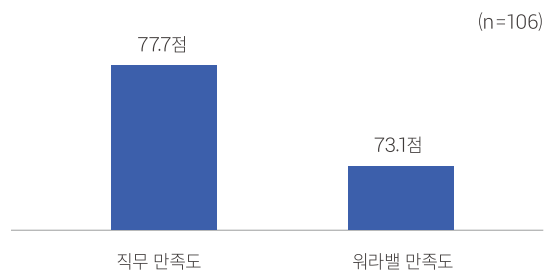
과거 ‘워커홀릭’이 대접받던 시대를 지나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근무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워라벨과 조금 동떨어진 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이 있다. 바로 기업을 대표해 메시지를 발송하고, 사건·사고가 터졌을 때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하는 홍보인들이다.

홍보인들은 커뮤니케이터이자 스페셜리스트로서 자긍심도 높지만, 언론을 상대하는 업무의 특성상 휴일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인지 타 직무에 비해 워라벨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기업 내에서 신입 사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로 꼽힌다.

이에 광고주협회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국내 200대 기업 홍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홍보인의 워라벨 만족도 조사’를 실시, 홍보 담당자들의 근무 환경과 업무 현황, 고충, 그리고 직무 만족도와 워라벨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워크’는 만족하지만 ‘라이프’와의 균형은 떨어져 조사 결과 기업 홍보 담당자들은 현재 직무와 삶의 밸런스에 대해, 응답자 106명 중 58명만이 만족한다고 대답했다. 직무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표 1】 홍보인의 직무 만족도 및 워라벨 만족도 지수



【그림 1】 직장인의 ‘워라벨’에 관한 의견 현황

회사 선택시 고려사항은?

1:1 채팅
2020.06.13 15:53 조회 300

회사 선택시 어떤걸 먼저 따지시나요?

- 9시 출근, 6시 정시퇴근을 할 수 있는 워라벨을 지켜지는 회사(급여는 낮은 편) 또는
- 워라벨은 1도 없지만 가족이 여유 있게 살 수 있도록 급여를 많이 주는 회사

극단적인 예이지만 저 정말로 2가지 중에 고민입니다.

- 1번이요. 2번 해봤는데 내 삶이 없더라고요. 2020.06.14. 06:44
- 워라벨 좋은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소개좀. 2020.06.14. 09:06
- 워라벨이용 2020.06.14. 09:13
- 워라벨이여... 2020.06.14. 09:33
- 1번이요~ 2020.06.14. 09:36
- 워라벨이요. 무조건 2020.06.14. 09:53

*출처 : 아시아경제, “저녁 있는 삶 살아야죠” 직장관 1위는 돈보다 ‘워라벨’ 기사

77.7점, 이에 비해 워라벨 만족도는 73.1점으로 직무 만족도보다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떨어졌다.

홍보 담당자, “왜곡 기사 정정과 유사언론행위 대응이 가장 힘들다”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조사 응답자의 46.2%가 ‘기자와의 관계 형성 및 유지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오보·왜곡·과장 기사가 정정되지 않을 때’(95.9%) 가장 힘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기사를 빌미로 광고·협찬을 요청 받았을 때’(79.6%), ‘술자리·골프 등 업무시간 외 진행되는 네트워킹’(69.4%) 순으로 나타났다.

‘세미나, 컨퍼런스 등에 참석 또는 협찬 요청을 받았을 때’도 업무 고충 중 한가지로 꼽혔는데, 올해 1월부터 조사 시점까지 응답자의 67%가 언론사 행사에 참석 또는 광고·협찬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 평균 협찬 요청 횟수는 12.3회 였다.

홍보팀에 대한 임직원들의 이해도는 낮은 편

위에서 조사된 것과 같이 홍보팀은 기자와의 미팅, 언론 주최 행사 참석, 골프 행사 등 업무시간에 외부 활

표 2 | 기자와의 업무 관계에서 느끼는 고충 사례

(n=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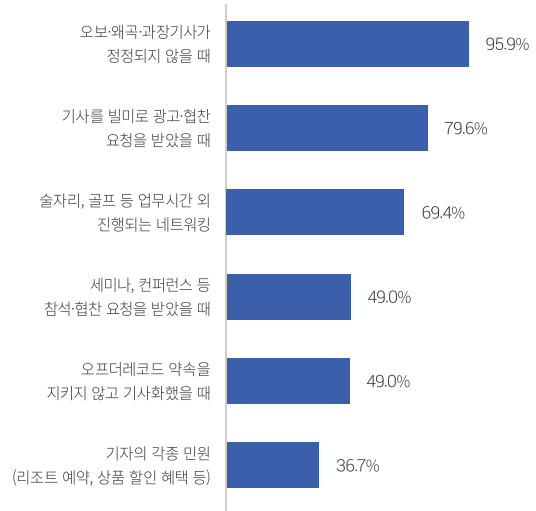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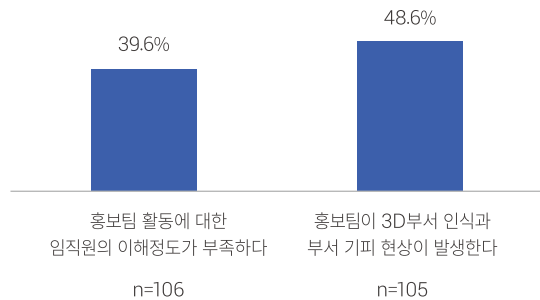


표 3 | 업무 환경에 관한 의견



동이 많다. 하지만 홍보인들은 이와 같은 활동에 대해서 응답자의 39.6%가 회사 임직원들의 이해 정도가 떨어진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이 회사 내에서 홍보팀이 3D 부서라는 잘못된 인식과 그로 인한 부서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답해 조직 내부에서의 홍보팀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성공적인 PR로 대내외 인식이 개선 시 긍지 느껴

한편 홍보 담당자들은 성공적인 홍보의 결과로 기업이나 조직, 브랜드에 대한 대내외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을 때(66.7%) 가장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답했다. 그 외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때(41.9%), 사회 변화와 다양한 정보, 트렌드를 누구보다 빠르게 접할 때(33.3%) 순으로 업무에 애착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해 조사한 홍보 담당자들의 직무 만족도는 77.7점으로 조사됐다. 주목할 점은 직급별로 직무 만족도를 살펴봤을 때 사원이 74점으로 가장 낮았고, 부장이 78.4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조사 대상자들이 속한 기업은 직원들의 워라밸 유지를 위해 많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주 40시간 근무를 위한 유연근무제 및 정시 출·퇴근 제도가 있고, 샌드위치 데이 및 리프레시 휴가, 점심시간 연장 등이 시행되고 있었다. 이외에도 패밀리데이, 월 2회 금요일 휴무제, PC OFF제, 반차/반반차 제도 등도 있었다. ☎

김다혜 dahye@kaa.or.kr

표 4 | 홍보인으로서 자부심이나 애착을 느낀 순간들

(n=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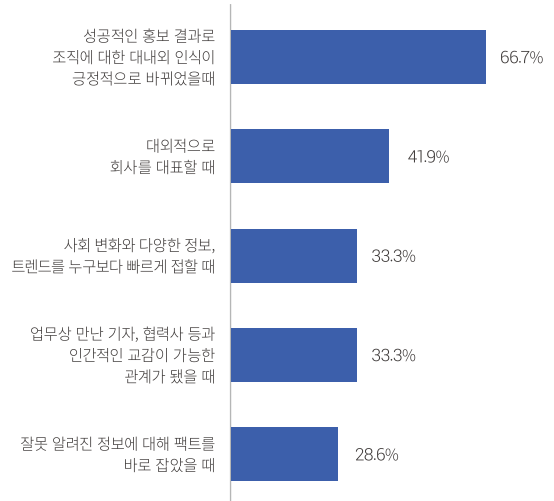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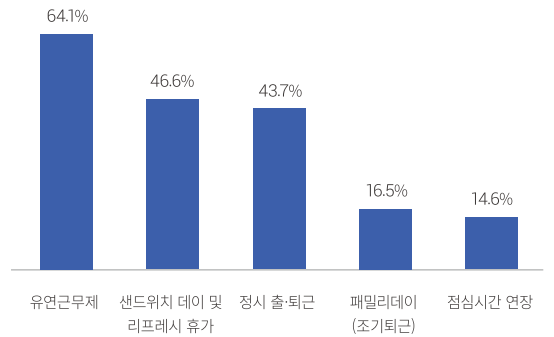


표 5 | 기업에서 시행하는 워라밸 유지를 위한 제도

(n=103)



<홍보인의 워라밸 만족도 조사> 개요

기간 '22. 04. 25 ~ 05. 06

대상 200대 기업 홍보 업무 담당자(응답 : 106명)

방법 이메일 설문조사